



<7·8월호>

<칼럼>



브렉시트에서 보는 말세의 인간

권호덕 총장

바울은 디모데후서 3:2에서 말세의 특징을 말하면서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주의 성향을 경고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사실은 말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은 그 본성상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간의 마음에 더욱 강박해짐에 따라 그 농도가 더 짙어 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자국 이익을 위하는 경향이 지나치게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 중의 한 사람인 트럼프의 자국이기주의적인 발언은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번에 세계를 흔들어 놓은 브렉시트 사건은 또 한 번의 자국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노출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인다. 과연 저들의 생각대로 이를 통해 자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공상가들이 공상하는 것처럼 옛날의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19세기 대영제국시대는 지금 세계 질서와는 전혀 다르다. 그 당시에는 강한 나라가 소위 미개한 나라를 정복하여 자국의 이익을 착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로 되어 있고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일이 거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하나로 얽혀져 있다는 사실은 지난번 그리스도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세계 경제가 출렁이던 때 그리고 이번 브렉시트 사건으로 재확인되었다. 이런 나라들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혼란에 빠져 파동칠 때 극동지방에 위치한 한국에도 강력한 반응을 나타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과 국가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물론 이런 상태는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항상 미완성적인 상태에 머물지만 말이다.

지금 인간 세상이 모순과 갈등 그리고 슬픈 일로 일상

월간 서신원

제 19호(Vol.2-7·8)
발행인: 권호덕 총장
편집인: 장석조 교수
발행소: 서울성경신학
대학원대학교
발행일: 2016 07 15

을 가득 채우는 것은 인간의 이런 결점과 한계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지역 이익주의에 빠져 또는 수많은 공동체가 집단 이익을 위해 시위는 물론 심지어 파업하여 나라 전체가 마비되는 것을 보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마치 모두가 자기 이익에 눈이 가려 나라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우리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매우 알레르기성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반대한다면 대한민국이 설 수 있을까? 거기에는 좌익 불순세력들이 괴담을 만들어 퍼뜨려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북쪽에서 핵폭탄이 떨어져 모두다 멸절당한다면 누가 좋아할까? 우리는 여기서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한국인들의 비판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읽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이 세상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수많은 교회가 어려운 문제에 만날 때, 우주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교회 내의 이익집단의 이익에 따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결정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수많은 교단들의 총회는 목사들의 모임과 장로들의 모임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 되게 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팽개치고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분열되어 있다. 더러는 담임목사파와 원로목사파가 나누어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낯뜨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고 나는 저들이 과연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또 이들이 주님 앞에서 받을 심판을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브렉시트와 같이 모든 국가가 자국 이익주의로 인해 흩어진다면 모두 다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비판적인 시각 앞에서 있는 한국 교회도 교회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뜻인지 분별하고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만 가능해질 것이다.

<세계동향>

“제 4산업혁명의 쓰나미”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삶의 패러다임은 매우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3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거기서 얻은 것을 많이 누리는 동안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열강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변화가 우리 앞에 닥쳐 올 때 교회는 세상이 이렇게 변할 때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한다. 여기서는 주간지 “미래한국”에 기고된 탁월한 식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 양성

박성현 미래한국 편집위원



webmaster@futurekorea.co.kr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사람관리, 협업(協業)능력을 지닌 자이다

2016년 1월 20~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이었다. 다보스포럼이 산업을 주제로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차 산업혁명이 산업·경제의 혁명적 변화를 이끄는 것은 물론, 인류 미래와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꿔놓을 만큼 커다란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3D 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등으로 불리는 급격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의 지능 디지털 기술변환(intelligent digital technology transformation)에 의한 혁명을 말한다.

지난 3월에 구글 딥 마인드의 인공지능 기술로 무장한 알파고가 한국의 대표 기사 이세돌을 4대 1로 이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알파고의 승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디지털 기술이 수학·통계·물리·생물 등의 영역과 기하급수적으로 융합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제4차 산업혁명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5년까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을 보

면 충격적이다. 2025년까지 90%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10%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된 옷을 입고, 미국 차들의 10%가 무인자동차가 될 것이며,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기능을 발휘한다고 한다.

또 자동차와 인공 간이 최초로 3D 프린터로 생산되고, 최초의 로봇 약사가 미국에 등장하고, 30%의 기업 회계감사가 인공지능에 의하여 이뤄지며, 빅 데이터로 인구조사를 대체하는 최초의 정부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고용시장 변화는 더욱 충격적이다. 로봇과 인공지능(AI), 생명공학, 3차원(3D) 프린팅 등의 기술 발전으로,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주요 15개 국에서 2020년까지 20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이와 동시에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510만 개의 일자리가 순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직군은 사무관리직으로, 앞으로 5년간 475만 9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빅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이 바탕이 된 자동화 프로그램과 기계가 사무직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로봇과 3D 프린팅의 위협을 받는 제조·광물업 분야 일자리도 160만 9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영·금융 서비스에서는 49만 2000개, 컴퓨터·수학에서는 40만 5000개, 건축·공학에서는 33만 9,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즉, 많은 일자리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생겨날 것이란 예측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주도할 미래형 인재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런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부터 이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미래고용보고서’는 2020년에 요구되는 교육목표 1위로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을 꼽았다. 2위에서 5위까지는 ‘비판적 사고’, ‘창의력’, ‘사람관리’, ‘협업(協業)능력’을 선정했다. ‘문제를 푸는 능력’을 주는 교육은 STEM에 기반 한 컴퓨팅적 사고, 통계적 사고 등을 함양해야 하므로, 교육의 방향도 이런 점에 착안하여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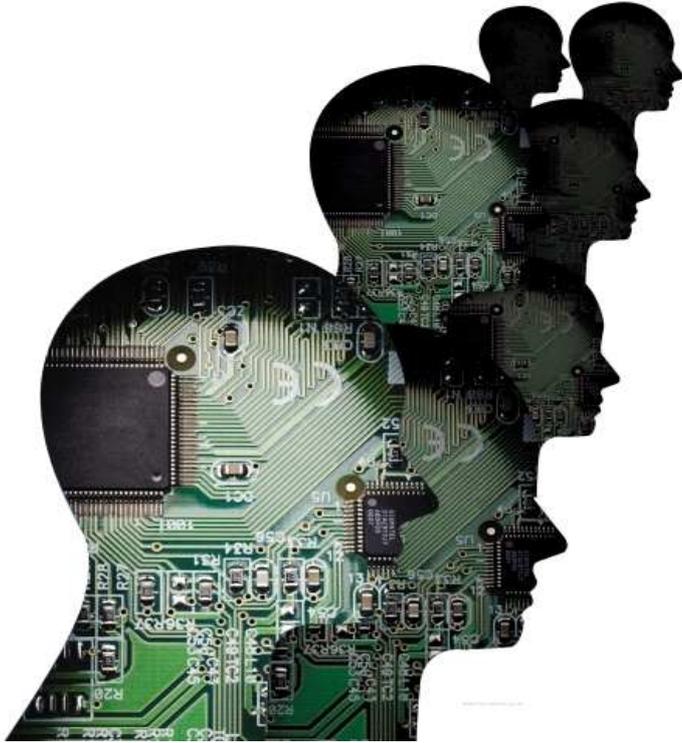
위의 교육목표 1~5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창조적 문제 해결 역량과, 팀을 이뤄 문제를 풀 수 있는 협업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미래형 인재는 이런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아야만 인공지능 로봇 등에 대체되지 않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우리 교육은 대학

입시부터 학교의 내신평가에 이르기까지 객관식 선다형(multiple choice) 평가방식에 크게 의존해 왔다.

대학입시에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보는 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전적으로 선다형 평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리어 방해가 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현재의 수능시험은 적절치 않으므로 대폭 개혁하거나 아니면 폐기처분해야 한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할 신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시점이 됐다. 신교육 시스템은 어떤 점에 착안하여 구축되어야 할 것인가?



(1) 컴퓨팅적 사고와 통계적 사고를 위한 교육

STEM 교육이나 인문사회과학과 예술 등을 융합하는 융복합 교육을 컴퓨팅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를 키워주는 방향으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컴퓨팅적 사고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구성하고 사람이나 컴퓨터가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 놓게 하는 프로세스적 사고력이다.

4차 산업혁명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교과체제에서 STEM 분야를 중심으로 컴퓨팅적 사고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전략 및 실행 방안이 필요하며 교사 양성 및 재교육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초중고에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5년에 우선 중학교부터 기존의 정보교과를 SW교과로 개편해 신입생부터 SW 수업을 의무적으로 하고, 초등학교는 2017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국어, 영어, 수학처럼 일반 선택과목으로 분류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SW 교육은 컴퓨팅적 사고 배양에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될 것이다. SW 교육시간에 컴퓨팅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교육도 병행되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데이터 기반의 지능적 변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통계적 사고(statistical thinking)를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빅 데이터에 의한 미래 예측,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공장 등의 운영에 유효하다.

통계적 사고란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확률과 통계를 이용하여 당면한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통계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수학, 통계, 과학 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2) 프로젝트 학습과 심층학습 중심의 교수(교사) 학습 방식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은 지나치게 주입식 교육과 선다형 평가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조형 인간, 컴퓨팅적 사고와 통계적 사고로 무장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방식을 바꿔야 한다.

여러 가지를 피상적으로 많이 아는 것만 추구하는 표층학습(surface learning)은 지양되어야 한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피상적인 많은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으므로 표층학습으로 지적(知的) 능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넓게 알면서도 동시에 깊이 알고, 새로운 결과물을 산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심층학습(deep learning)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학습(project learning)은 심층학습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과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동적인 그룹 활동으로 진행되는 학습이며, 학생 스스로 공부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심층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생이 강의시간을 주도하면서 과제의 답을 만들어 가는 수업이 됨으로 학생의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운다. 또 협동적 그룹 활동으로 소통 능력도 증가시킬 수 있다.

교수(교사)도 좋은 과제를 정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주어진 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수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교수(교사)의 사전학습도 매우 중요하다.

(3) 선다형 평가방식의 혁신과 대학의 입학생 선발방식 혁신

우리 교육은 대학 입시부터 학교의 내신평가에 이르기까지 선다형 평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거의 모든 학생이 대입 준비로 보는 수능이 대표적인 선다형 평가방식이다. 이러한 객관식 평가방식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에 적합하지 않다. 내신평가에서도 선다형 평가보다는 주관식 평가방식을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입학생 선발 방식도 대학에 자율권을 줘 대학이 뽑고 싶은 유형의 학생을 다양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뽑을 수 있도록 완전히 풀어줘야 한다.

최근에 입학사정관제도가 생기면서 자율권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타파되어야 할 3불(不) 정책(고교 등급제 불가, 본고사 불가, 기여 입학제 불가)은 그대로 고수되고 있다.

가능하면 교육기관에 모든 것을 일임하여 교육의 자율화, 교육의 수월성 제고, 교육의 국제화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4) 초중고 교육에서 공교육 역량의 강화

현재 우리의 초중고 교육정책은 1973년 발표된 혁명적인 '교육평준화' 정책을 따르고 있다. 이 정책을 발표할 당시 내세운 이유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감축, 학력 격차 해소 등이었다. 그 후 43년이 지난 지금 이 정책을 평가해 보면, 우리 사회는 사교육 천국, 공교육의 하향평준화, 학력 격차 심화를 초래하여 실패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4.4만 원으로,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국·영·수 등의 선행학습을 위해, 공교육에서 받기 어려운 음악·미술·예체능 등의 학습을 위해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공교육 정상화다. 각 초중고에 교육에 관한 자율권을 줘 학생들이 학원에 갈 필요 없이 학교에서 모든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학교의 자율권 속에는 외부 강사에게 강의를 허용할 수도 있어야 하고, 학생 선발 권한도 있어야 하고, 교과목 선정이나 시간 배정에도 상당한 자유가 있어야 하고, 소정의 경비를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질 높은 인터넷 교육이나 방송 교육을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보완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러한 자율권은 반드시 평가를 동반해야 하며, 평가를 통해 제대로 교육역량을 증대시키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 학력 격차를 줄이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율권에 근거한 공교육 역량 강화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상향 평준화에 기여할 것이며, 학력 격차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의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 역량이 높은 과학고나 외국어고 학생들은 학원에 갈 필요 없이 학교에서 모든 필요한 교육을 받는 시스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도입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유능한 인재로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를 꼽는다. 데이터 과학자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포함한 많은 양의 데이터의 수집, 정리와 분석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전문가이며, 조직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한다. 데이터 과학자는 제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인재로서, 다음과 같은 지식 역량을 가져야 한다.

-IT분야: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래밍, 빅 데이터 소프트웨어의 이해 등.

-통계분야: 데이터 분석기법, 통계 패키지 사용 능력 등.

-경영, 산업공학, 품질경영 분야: 소비자의 행동이나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현재 우리 대학에는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조속한 시간 안에 우리 대학들이 데이터 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데이터 과학자가 양성되기 전에는 기업에서는 일단 전산, 통계분석, 품질분야의 전문가 등을 데이터 과학자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다섯 가지 교육의 핵심적 사고에 기반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가?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교육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하는 하향식 교육개혁은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데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 현장에 충분한 자율권을 줘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변화들이 촉발되도록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장과 총장에게 재정지원과 함께 충분한 자율권을 주면 교장(총장)은 학교 특성에 맞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을 기획하고 실천해 볼 것이다. 학교에 따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실패는 성공을 위한 교훈이 된다.

둘째, 초중고 교사들에게 프로젝트 학습과 이에 따른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연수와 교육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 프로젝트 학습과 수행평가를 지원할 정보 및 컨설팅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은 시간이 요하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셋째, 수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새로운 대안과 대학 입시 방법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하는 소위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개혁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산하에 두고 연구와 실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는 5년 단임 정권을 넘어설 수 있도록 위원들의 임기

를 7년 정도로 하고,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미국과 독일이 앞서가고 있는 만큼 이 나라들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도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한다.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로서, 한 순간의 방심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놓쳐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래한국**

<학교소식>

1. 지난 6월 13일에서 17일까지 본교 강철 이사장, 권호덕 총장 그리고 이세진 부총장은 호주 시드니에 있는 '시드니(SCD) 대학교 한국신학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호주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이 학교는 학생 관리면에서나 교수 연구 업적에 있어서 서구의 명문대학교를 생각나게 했다.

한인신학부 김호남 박사는 한 주간 동안 매우 헌신적으로 우리를 섬겨 주었다. 이 학교는 한국의 우수한 여러 신학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우리 학교가 허락이 된 것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려는 교단 신학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드니는 오스트랄리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Diane Speed 총장과 권호덕 총장 서명식



양 대학교 총장의 서명한 양해각서 교환



체결후 기념촬영 이 학교에는 본교에서 근무하던 김세현 교수도 봉사하고 있다.



SCD대학교 이사장과 본교 강철이사장 양해각서 서명식

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 협정

Party A: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Party B: Korean School of Theology, Sydney College of Divinity
시드니 신학대학 한국신학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구약주석>

에스겔 주해(4)



에스겔 3:1-27

박영복 (구약학, Ph.D.)

에스겔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다.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의 맛을 꿀과 같이 달더라고 표현하고 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몸에 꿀과 같은 유익이 있는 것이다. 3절에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라는 표현은, 이런 먹는 행위가 단지 몸에 좋은 것을 섭취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의 몸으로 일체가 되어 체화(體化)되고 그 모든 메시지를 습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4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큰 장애물 하나가 있음을 언급하신다. 전달하는 언어가 달라서 이스라엘이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에스겔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5-7절).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려면 보통 담대함을 가져서는 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었다(9절). 이렇게 무장한 에스겔은 이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11절).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따

지고 보면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듣지도 않을 메시지를 에스겔이 왜 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강권하여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적어도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구원을 기다리는 경건한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인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이러한 질문들의 대답을 듣기에는 에스겔이 너무 연약하고 충격이 심했던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마치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그가 거주하던 그 밭 강가로 데리고 오셨다.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 힘있게 감동시키지 않았더라면, 에스겔은 “근심하고 분한 마음”(14절)을 자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근심하게하고 분하게 했을까? 우선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대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먹이신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메시지가 몸에 흡수되어 모든 말씀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말씀들은 에스겔을 근심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 듣는 사람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완고하기에 그지없는 상황이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족속”(9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두렵고 무섭고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그를 분하게 만들었을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가문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의분이었을 것이다. 민수기 4장 3절에 따르면 레위지파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성막의 봉사를 할 수 있었다. 만일 에스겔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면, 그는 의젓한 아론계열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자신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민들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가? 예레미야 2장 7-9절을 읽어보면, 그의 어린 시절에 자신의 가문인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며 온 이스라엘이 부패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적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이다.¹⁾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가문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포로로 끌려왔으며 예루살렘의 운명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유일한 선지자가 되었다.²⁾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지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

1)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던 요시야 왕 때에 에스겔은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 즉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성전에서 한창 제사장이 될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관리, 선지자, 제사장,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음을 역설하였다.

2)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일한 선지자이다. 다니엘서는 히브리 정경에 성문서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선지자로 불만한 소명기사가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다.

하는 선지자 사명을 받은 에스겔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또한 자신의 가문을 정죄하는 메시지였을 것이다. 에스겔은 집에 돌아와 꼬박 7일 동안 두려워 떨며 지냈다(15절).

하나님은 에스겔이 진정될 때까지 그 7일을 기다리셨던 것 같다. 급하신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시고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먼저 임하셨다. 에스겔을 왜 이스라엘에게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의 사명을 에스겔이 부여받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실 필요가 있으셨다.

“1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파수꾼의 역할인 것이다. 파수꾼은 경고만 전하면 그 역할을 마친다. 그 경고를 들은 자가 경고를 주의할지 안할지는 파수꾼의 역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18-21절). 그렇다면, 에스겔의 역할이 이스라엘을 깨우쳐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경고를 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에스겔의 경고를 듣지 않으려 하고, 에스겔이 이미 먹은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만 기록되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목적은 이전의 선지자와 사뭇 다른 것이 된다. 바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회개의 촉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宣告)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들판에서 만나셔서(22절) 에스겔을 이스라엘로 보내기 위한 마지막 당부만을 남겨 놓고 계셨다. 너무도 이상한 당부여서 그러신지 혹은 에스겔에게 소명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두 번째 보여주신다(23절). 그리고는 너무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신다. 앞으로의 에스겔의 사명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결박되어 집에 감금될 것과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서 병어리가 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에스겔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적군이 쳐들어올 때 크게 외쳐 경고를 알리는 파수꾼이 아닌가? 그런데 결박에, 감금에, 병어리까지? 도대체 에스겔은 뭘 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자의(自意)로 이스라엘을 꾸짖지 못하게 하셔서 패역한 이스라엘로부터 에스겔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신다(26절).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에게 조

차 개인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병어리³⁾가 된 에스겔의 희생은 분명 무가치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른 의도를 숨겨 놓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4장에서부터 에스겔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다.

<신앙시인의 수필>

경의(脛衣)에 경의(敬意)를 표하며



이경아 박사

평소 한 시간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지 않았는데 닉 달간 거의 매일을 종로로 향하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보니 벌써 1년이 되어나 보다. 종로행은 가을이 막 문턱에 도착했을 즈음 시작되었다. 나는 매일 오전 9시경에 집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동암역에 도착한 후, 동암역에서 소요산행 전동차로 갈아탔다. 종각까지는 승객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한 시간이 조금 넘거나 덜 걸렸다. 어쩌면 나에게 그 때의 종로행은, 시간 또는 사람들 사이, 이리저리 죽 죽 뻗어있는 길을 오고갔던, 여행이라면 여행이었던 셈이다.

옛날이라고 하긴 멋쩍지만, 아주 오래 전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다.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매일 출퇴근을 해야만 하는. 그런데 싸움에 우월한 유전자라고는 전혀 타고나지 못한 태생인 내가 출근시간에 만원버스나 전동차를 타기 위해 몸싸움을 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출근시간은, 봄비는 대중교통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생각다 못한 나는 나의 출근시간을 바꾸었다. 이른 5시 50분쯤 집에서 나가 버스나 전동차를 타면 승객은 서너 명뿐이었다. 그리고 7시 전엔 사무실에 도착했었다. 그 때 이후 종로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다. 굳이 새벽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대에 집을 나서서 그 시간대에 도착하는 차를 타고 어디를 규칙적으로 갔거나 가야만 했던 일이 없었으니까.

종로행을 시작하면서 나는 약간 흥분했었다. 웬만해서는 감정의 동요가 거의 없는 나 스스로 생각해보도 좀처럼 포착하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그것은 시절이 가을 입구가 아니었더라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취미가 앞에 있는 대상을 관

3) 크리스토퍼 라이트, 『에스겔 강해』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4), p.95.

찰하는 것인 나로서는, 그 대상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황 이든 혹은 풍경이든 그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습관 인 나로서는, 마을버스에서 혹은 전동차에서 처음 본 얼굴 들을 비슷한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 신기했다. 단 오 분만 빠르거나 늦어도 앞차를 탔거나 뒤에 오는 차를 타야만 하는 출근길, 잦은 배차 간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의 표정과 차림새를 유심히 보 게 되었다. 같은 공간에서 얼마간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 주로 맞은편에 앉는 사람, 옆에 앉는 사람, 손잡이 기둥에 기대서는 사람. 출발하기도 전에 신문을 펴는 사람, 뭔가 먹는 사람... 그런데 그들의 표정과 차림새는 늘 그랬다. 처음 눈에 띄었을 때와 비슷한 종류의 옷이나 가방, 그 얼굴, 그 표정. 어디쯤에서부터는 책을 무릎에 펴놓은 채 암전히 조는 사람, 앞으로 고꾸라질 것처럼 고개를 푹 푹 떨어트려 가며 아예 자는 사람,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필기구까지 꺼내들고 뭔가 열심히 받아 적으며 공부하는 사람, 이어폰 에서 나는 음악소리가 나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늘 크게 음 악을 듣는 사람.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면서도 저마다 한결같았다. 가끔 생소한 얼굴들이 때로 몰려 탈 때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손잡이를 잡은 채 고개를 이리 빼고 저리 돌려 가며 자신들이 함께 겪은 일이나 공유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열심이었다. 한번 시작하면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네들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지나면 여느 사람보다 빠른 어투나 큰 목소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하였다. 무슨 법칙처럼.

이러한 시간의 틈새에서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였다. 맞 은편 맨 가장자리에 었던 아가씨가 앉아 졸고 있었다. 다리를 짝 벌린 채였다. 무릎 위엔 두 손바닥 합친 것 만한 빨 간색 핸드백. 그 아래로는 정말 보일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공간. 그 모습을 처음 본 이후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자꾸 그 아가씨를 보게 되었다. 그러다 얼마쯤 가서 보니, 아가씨는 거기 없었다.

그 날 이후 그 아가씨는 늘 그런 차림이었다. 위에는 짧은 점퍼, 그 속에 약간 밖으로 나올 만한 길이의 티셔츠와 밀이 보일 듯 말 듯 짧은 스커트, 그리고 스타킹 같기도 하고 타이즈 같기도 한 스타킹이라고 부르기에 타이즈라고 부르기에 뭐가 어울리지 않는 그것을 신고. 아니 입고. 얼마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런 차림으로 전동차 를 타고 앉아 조는 아가씨는 비단 그 아가씨만이 아니었다 는 것을. 그 아가씨들이 신은 건지 입은 건지 하는 그 양말 도 아니고 바지도 아닌, 그렇지만 분명 하의(下衣)에 속하

는 그것의 이름이 레깅스라는 것도.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실소를 금치 못했던 순간의 내가 지금도 보인다. 세대 차이라고 해야 하는가.

나는 여성이다. 여성인 내가 레깅스를 입고 혹은 신고 앉은 채 다리를 아무렇게나 벌리고 졸고 있는 아가씨들을 보았을 때의 그 조마조마했던 순간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물론 지금 그런 모습을 볼 때에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남성, 젊은 남자들이 그 모습을 볼 때의 느낌은 어떠할까. 생각이 이쯤에 도달하자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나 정작 레깅스 이용자들은 그런 느낌이 없는 듯했다. 말하자면, 레깅스는 스타킹이 아니며, 오히려 바지종류에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활동 량이 많을 때 간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거치적거리지 않으 므로.

그런데, 남자들도 레깅스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 니다. 내가 물어봤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레깅스를 스타킹, 조금 두꺼운 부류의 스타킹이 아닌가하고 반신반의했었다. 그러니까 레깅스는 여성 이용자들에게는 바지다. 간편하고 활동적인 복장일 따름이다. 바지를 입었으니 어디에 앉든 앉은 자세가 어떠한 그리 조심할 필요가 없다. 스타킹처럼 쉽게 올이 나가는 법도 없고 속옷도 속살도 비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남성들은 레깅스를 스타킹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남성과 함께 있는 여성은 때에 따라 적당한 눈요기와 자극이 된다. 어떤 면에서는 서로 좋은 의 복인 셈이다. 한쪽은 편하고 한쪽은 즐거우니까.

조사해보면 레깅스(leggings)의 뜻은 두 가지로 규명되 어 있다. 정강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는 형겅이나 가죽 조각과 가랑이 끝에 고리를 달아서 발에 꿰어 입는 보 온성이 뛰어나고 신축성이 좋은 바지가 그것이다. 이를 고 려하면 내가 겪은 그 조마조마함과 아슬아슬함도 어느 정 도 용서가 된다. 결국 레깅스는 스타킹이기도 하고 바지이 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레깅스를 굳이 한국어로 표현 한다면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각반(脚絆) 또는 행전(行纏) 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국어사전에 각반은 걸음을 걸을 때 발목 부분을 가뜩하 게 하기 위하여 발목에서부터 무릎아래까지 싸거나 감는 띠라고, 행전은 바지나 고의를 입을 때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 매는 물건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각반이나 행전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 경의(脛衣)다. 우리나라에서 경의는 고려시대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때의 경의를 각반이 라고 하고, 이후 조선시대에 이용했던 경의를 가리켜 행전 이라고 했다. 이러한 경의는 요즈음 상복(喪服)에서 볼 수 있다.

나는 왜 처음부터 레깅스를 긍정적으로 생각지 못했으

까. 맞은편 아가씨를 보며 가슴 졸이던 그 때 그 자리를 되 돌아본다. 한참 뒤떨어진 사고방식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가끔 주변에서 “요즘 아이들은…” 하고 화두를 꺼낼 때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은 주로 부정적인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때마다 나는 그 때 거기서 즐기고 있던 레깅스 아가씨를 떠올린다. 맞다. 어느 정도의 과감한 노출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태도는 젊음의 반증에 다름아니다. 그들은 점심 정도는 패스트푸드로 간단하게 때울 수 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라면 저녁정도는 꼭 참고 굶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토폴 토폴 책을 들고 다니며 외국어 실력을 더 쌓기 위해 학원 수강증을 끊는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그뿐인가. 그들은 전에 없던 이 실업난과 경제난 속에 진작부터 취직 준비를 하느라 피곤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즐길 줄을 안다. 음주가무는 물론 인간관계와 부자 되는 데까지 그들의 관심이 가 닿지 않은 데가 없다. 그리고 용기와 패기, 실천하는 힘을 지녔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쏟아지는 책들과 급변하는 체계와 제도 속에서, 무한경쟁시대라는 벽을 뛰어넘어 친구를 사귀고 어울려 놀면서 저리도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경의를 표하고 싶기까지 하다.

문제는 개인이다. 어쩌다 혼자 있는 시간이면, 자신의 생활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과 한두 번의 실패에 낙망하고 현재를 무기력하게 보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맞서 싸우는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 때 어느 쪽이 이기는가에 따라 하루를 사는 모양이 달라진다. 어디론가 뻗어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하루 동안의 행보, 꼭 그만큼의 뭔가가 보이지 않는 차이를 초래한다. 주로 혼자 있는 시간에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생기는 미세한 차이는 인생의 행로 어디쯤에 서면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여하튼, 젊음이란 갖고 싶은 것도 해보고 싶은 것도 용량이 따로 없는 상태이다. 무제한적이다. 끊임없이 샘솟는 다양한 호기심은 또 어떤가. 젊음은 되도록 가까운 곳에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소유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마음에 애가 탄다. 이를테면 어떻게든 성취감을 맛보고 싶은 열망이 들어있는 분화구이다. 젊음에 대한 수사가 어찌 이뿐이겠는가. 그 많은 내용을 어찌 다 표현하겠는가. 아울러 레깅스 역시 젊음의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다. 인식의 지각이다. 지각한 그 때 거기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왔다. 와서 보니 그리 멀지 않은 길인데 참 오래도 걸렸다는 자각. 아직도 이렇게, 미처 몰랐던 것 모르는 것이 많고 용납하는 것과 포용하는 것의 범위가 협소함을 어찌해야 하는가. 조용

히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불현듯, 가을을 마중하며 시작하였다가 겨울의 뒷모습을 배웅하고서야 멈춘 그 여행이 그리워진다. 요즘에는 얼마나 걸릴까. 동암에서 종각까지. 얼른 인터넷을 검색한다. 그 구간에는 24개역이 있고 54분 걸린다고, 모니터엔 금세 지도까지 뜬다. 참 편리한 세상. 그런데, 정말 그럴까. 눈에 띄는 것이 전부 진짜는 아닌데. 말할 수 있는 것만이 진실은 아닌데.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 가운데 진정성과 우수성이 살아있는데, 오롯한 마음의 길이 나 있는데. 찬찬히, 뜨는 것과 실존하는 것 사이를 본다. 거기 존재하는 무한한 차이 혹은 사이에 대해 생각한다. 그렇다. 어쩌면 동암에서 종각까지는, 그 54분보다 긴, 훨씬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 길에는 이루 셀 수 없는 역들이 생겨나고 스러지면서, 지금 여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때 거기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 이상아 수필집 『조용히 사랑하고 싶다』(2010) 중에서

<신약주석>

골로새서 해석



골로새서 3:1-11절

최흥식 교수(Ph.D., 신약학)

(횃불신학대학원대학교, 재건 측)

본문개관

개요

본문은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골로새 교인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을 추구하면 살아야 하는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단락인 1-4절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위의 것들을 추구해야 함이 강조된다. 둘째 단락인 5-11절은 신자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 1-4절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 함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였고 이 경험을 한 신자들은 이 땅 중심의 세계관과 삶의 양식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하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추구의 대상이 세속적인 성적 탐욕과 물욕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에 속한 영적 실재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신자의 삶은 신본주의적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므로 우리는 땅의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의 삶이 하늘의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항상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세속적 삶을 버리라 - 5-11절

신자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 그리고 정욕과 탐심과 분, 악의, 훼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 땅에 속한 것들을 죽여야 한다.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 이므로 옛 사람의 정체성과 삶을 버려야 한다. 새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 내에는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차별이 없다. 세상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며 그 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분 중심으로 세상의 질서는 재편되었기 때문에 믿기 이전의 세계관은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나아가야 한다.



절별 주해

1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한다. 물속으로 잠길 때 신자의 옛 사람의 죽었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어나 새로운 삶을 받았으니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새 삶을 살아야 한다. “위의 것”은 하나님나라에 속한 영적인 것들은 말한다. 그것들은 성령의 열매들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갈 5:22-23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영적인 덕목들을 추구하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위”는 하나님이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히 8:1; 12:2 참조) 그 우편에 승귀된 그리스도가 좌정하는 곳이다(막 12:36; 행 2:34-35; 히 1:13 참조). 이 진술은 시편 110:1과 단 7:9-14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다는 말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셨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의미한다. 또한 그 것은 실재는 하늘에 있으므로 신자는 하늘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됨을 함의한다.

2절: 바울은 다시 한 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신자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생각하다”는 단순히 지적으로 무엇을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확고한 견해와 관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것”은 영적이고 기독교 윤리적 차원의 덕목을 지칭하는데 골로새서 3:12-17절에서 바울은 그 것을 열거하고 있다. “땅의 것”은 원어 상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 물질적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 차원의 것들을 지칭한다. 바울은 “땅 위에 있는 것들”을 골로새서 3:5-9절에서 언급한다.

3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밝힌다.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이다. 바울은 다시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강조한다. 과거형 동사 “죽었다”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이 세례 받기 이전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버린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믿기 이전의 삶의 태도와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신자는 이전에 살았던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 세상이 아닌 하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생명”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의미한다. 이 삶은 감추어졌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은 이 전 삶과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4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가 신자의 생명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신자의 삶의 중심이요 전부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신자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주었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은 초기 기독교의 주요한 신앙이었다(막 13:26; 행 3:19-21; 고전 15:22 살전 4:15-17 참조).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될 것이라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존전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드시며 우리의 썩을 육체를 하늘의 육체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에서 존귀하게 되어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5절: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삶의 초점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권면한다. “땅 위에 있는 지체”는 문자적으로 보다는 은유적으로 해석하여 신체의 기관이 아니라 신체의 기관으로 행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것은 로마서 8:13의 신자가 죽여야 하는 “몸의 행실”과 일맥상통한다. 바울은 “땅 위에 있는 지체”를 윤리적 차원으로 이해하여 갈라디아서 5:19-21에 나오는 “육신의 열매”와 연관 지어 이해하였을 것이다. 죄를 쉽게 범할 수 있는 성향이 있는 인간은 육신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정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은 다 성적인 죄와 연관이 있다. 신자는 이러한 죄를 죽여야 한다. 바울사도는 고전 6:9에서 음란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갈 5:19 참조). 정욕은 금지된 어떤 것을 추구하는 욕구를 탐심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구를 뜻한다.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유대교의 신앙은 십계명 제 2계명에서 알 수 있다(출 20:4-5; 신 5:8-9).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만들어 그 것들을 마치 신처럼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탐욕적인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든다. 이 진리는 에베소서 5:5에서 확인 된다: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고전 6:10 참조).

6절: 바울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탐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언약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삶을 살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출 32:10-12; 민 25:1-4; 심 29:16-28).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러한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7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삶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었음을 지적한다. 세속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그 영향과 지배를 피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부도덕한 삶을 조장하는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정욕을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세속사회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는 불신자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8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세속적 삶을 살았던 시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는 경험을 한 신자들에 열렸음을 상기시키면서 부도덕한 삶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이제는”은 하나님의 구원역사와 신자들의 세례를 통해 새롭게 펼쳐진 종말론적 시대를 의미한다(롬 3:21; 6:22; 골 1:22; 엡 2:13 참조). 새로운 시대에는 이전의 세상 중심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하늘 중심의 것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뜻한다. “벗어 버리라”는 은유는 더 이상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런 옷을 벗어버리듯이 하나님과 하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는 신자들에게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들을 내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들”은 다음에 나오는 악의 조목들을 가리킨다. “분”은 마음에 품은 화를 의미하며 화를 내는 것은 남을 무시하며 인격을 모독하게 하는 악한 감정이다. 화를 내는 것은 육신의 열매이다(갈 5:20 참조). “악의”는 남을 중상모략하고 해롭게 하려는 악한 감정이다. 횡방은 남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중상모략하거나 비방하는 모욕적 언사를 가리킨다. “부끄러운 말”은 남을 욕하는 것과 음담패설을 일컫는 말이다.

9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행위이다. 남을 거짓말로 속이고 진실을 감추는 행위는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며 인간관계를 파멸로 인도한다. 바울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라”고 권고한다.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사람을 의미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역사와 신자들의 세례를 통해 새롭게 펼쳐진 종말론적 시대 이전에 살았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세속적 자아와 삶의 방식을 다 던져 버리라고 명령한다.

10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옛 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써 “새 사람”을 입게 되었음을 언급한다. 이 사실이 세속적 자아와 삶을 포기하게 하는 신학적 이유이다. “새 사람”은 “옛 사람”과 대조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덧입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후 5:17 참조).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갈 2:20 참조). “입는다”는 도덕적 신앙적 특성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바울은 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옷을 입었던 점을 배경으로 말하는 것 같다. 새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배경을 두고 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해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신 제2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타락할 때에는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대로 행하지 않았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른 자이다.

11절: 바울은 새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 내에는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차별이 없음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께서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냐 자유인” 사이의 차별을 다 무의미하게 만드셨으며 폐지 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질서가 오기 전에는 위와 같은 차별의 세계관이 옛 사람의 관점과 삶을 지배했으나 새로운 질서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새 사람에게는 이것들이 더 이상 소용과 효력이 없게 된 것이다(갈 3:28; 5:6; 6:15 참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백성이며 이방인은 죄인이요 언약 밖에 외인이므로 유대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인종적 장벽을 의미한다. “종이나 자유인”은 사회적 신분의 차별을 의미한다. “야인”은 발달된 문화가 없는 야만인을 가리킨다. 스구디아인은 흑해 북부 연안에 살았던 매우 난폭하고 야수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차별의 벽을 허무셨고 그 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었다(엡 2:14-15 참조).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신다는 말은 세상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며 그 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분 중심으로 세상의 질서는 재편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세상을 새롭게 재편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므로(고전 15:28 참조) 그 분 안에는 그러한 차별과 장벽은 무의미하며 무력한 것이다.

<세계동향>

기독교인들은 세계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목해야 한다. 인류 역사의 흐름은 새하늘과 새땅을 바라보는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기존 세계 질서가 봉괴됨의 징조인가?

2차대전 후 굳어진 미국 중심 자유주의 질서 봉괴되나?



지난달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왼쪽)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대화 중이다.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해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공약으로 집권했지만 채권단에 투항해 유로존에 남았다. [AP=뉴시스]

“자유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브렉시트 파장, 세계질서 지각변동 예고
서구 가치 일방 주입 곳곳서 파열음
빈부 격차, 종교 갈등, 민족주의 횡행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2012년 미국 격월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역사의 미래(The Future of History)’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후쿠야마 교수는 “규제 철폐와 자유시장 원칙에만 몰두한 결과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유럽 19개국) 위기가 발생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급격하게 진행된 중산층의 몰락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1989년 저서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승리를 선언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쿠야마 교수의 경고가 다시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예상치 못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서구 언론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구축된 국제적 가치와 질서, 이른바 ‘포스트 1945’ 질서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나 중국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서구 가치의 한 축이었던 영국이 민족주의와 같은 구(舊)질서의 가치에 끌려 EU를 이탈했다는 데 충격을 받고 있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달 26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붕괴’에서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를 잇따라 물리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구축한 미국과 동맹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출범 이후 92년 EU 탄생에 이르기까지 ▶민주적 정치체제 ▶통합된 시장 ▶법치주의 ▶열린 국경 등의 실현은 유럽인의 이상이였다. 1000년 유럽 역사 동안 숭한 전쟁을 겪었고 20세기에만 두 차례 세계대전의 전장이 됐던 유럽은 이상적인 사회와 항구적인 평화를 원했다. 18세기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주창한 ‘영구평화론’을 구현하려 한 것이다.

윌트 교수는 “미국이 전 세계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하드 파워’라면 통합된 유럽은 ‘소프트 파워’로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유럽의 가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인들은 이상적(理想的) 가치보다 자유로운 주권 행사, 국경 통제권 같은 구질서에 끌렸고 ‘위대했던 과거’ 같은 향수에 현혹됐다”고 분석했다.

세계의 경제블록



윌트 교수의 분석대로 미국과 동맹들은 전후 70년 동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안보 ‘블록’ 구축에 힘써 왔다. 90년대 공산주의와의 이념 대결에서 승리한 뒤론 이 ‘블록’이 전 지구적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이 팽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대표되는 양자·다자간 안보동맹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표되는 경제동맹도 영역을 넓혔다.

하지만 서구적 가치의 일방적 주입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21세기 들어 미국과 동맹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민주 정부를 세웠지만 분쟁은 멈추지 않았다. 헌법 제정이나 정당 설립, 자유 선거 같은 껍데기보다 중요한 건 이 같은 가치가 구성원에게 스며드는 것이란 게 윌트 교수의 지적이다. 빈부 격차, 종교 갈등, 다원주의와 민족주의 발호 등을 간과한 결과 반세기 넘게 구축된 세계질서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브렉시트 충격 속에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비(非)자유주의 국가들의 움직임에 주목했다. NYT는 지난달 25일 “브렉시트는 단순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후 질서 전반을 흔드는 신호탄이 됐다”고 분석했다. 서구사회의 통치 방식(governance)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다.

기존 질서에서 소외돼 있던 중국·러시아가 부상하고 시리아·아프가니스탄 등 국가 기능이 붕괴된 지역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며, 폴란드·헝가리 등 유럽 지역에서조차 구시대적 민족주의가 발호하게 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NYT는 브렉시트 이틀 만인 지난달 25일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총회에 주목했다. NYT는 “대표적 비자유주의 국가인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블록이 주도권을 빼앗아 올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영국이 여전히 나토의 주요 회원국이지만 브렉시트 이후 공동 안보를 위한 군사비 지출을 꺼릴 가능성이 높아 유럽 안보 동맹의 와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NYT 칼럼니스트 로저 코언은 “자유주의 질서가 아시아의 빈곤을 해결했지만 동시에 유럽 중산층의 일자리를 줄어 들게 했다”며 “분배와 균형을 간과한 자유주의가 세계를 어떻게 분열시키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주의 체제의 약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FP는 “도널드 트럼프나 장마리 르펜(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FN) 창립자) 같은 극우 정치인들은 자유민주 질서가 제공한 자유를 이용해 사회를 납치했다”고 꼬집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도 “부유한 엘리트와 그렇지 못한 대다수 사이의 빈부 격차가 두 세대 넘게 지속되면서 각국의 정치를 지배하게 됐다”며 “국가 지도자들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할 때”라고 지적했다.

“러시아·터키·태국 등 27개국 권위주의 국가로 회귀”

전문가들은 서구 민주주의가 내재적 모순으로 위기를 맞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개인과 정부라는 전제 자체가 틀릴 수 있다는 의미다.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는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민주주의의 쇠퇴’란 칼럼에서 “2000~2015년 러시아·터키·태국·케냐 등 27개국이 권위주의 국가로 회귀했다”고 지적했다.

비(非)자유주의 국가인 중국이 경제와 안보 모두 영향력을 확대한 것도 근거가 됐다. 이코노미스트 기자 출신인 존 미클스웨이트와 에이드리언 울드리지가 쓴 2014년 베스트셀러 『제4의 혁명(The Fourth Revolution)』은 ‘포스트 1945’ 질서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했다. 미클스웨이트와 울드리지는 국민 국가의 탄생과 자유주의 국가의 형성, 복지 국가로의 전환 등 세 차례의 혁명에 이어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보편적 복지에 집착하는 좌편향 정부나 자유시장을 맹신하는 우편향 정부 모두 ‘관료주의적인 큰 정부’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서 “서양인들에게 싱가포르는 현명한 수호자 계급이 은(銀)과 동(銅) 계급을 돌보는 플라톤의 공화국처럼 보이지만 직접적 영향을 준 건 정부가 가장 똑똑한 인재를 뽑는 중국의 ‘만다린 전통’”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중앙일보)

V. 개혁주의 선교신학 관점에서 본 영적 전쟁



배춘섭교수(Ph.D. 선교신학)

지금까지 본 논고는 영적 전쟁에 관한 오늘날의 다양한 견해를 네 관점에서 살폈다. 특히 필자는 전략적 차원에서 영적 전쟁(SLSW)의 신학적 쟁점들을 개혁주의 입장에서 논의했다. 소위 '제 3의 물결'은 오순절과 은사주의 운동을 계승한 성령운동이다. 이 물결은 이전의 두 물결처럼 성령의 은사를 수반한 기적활동과 사단과의 능력대결을 통해 승리주의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지향한다. 그러나 능력대결은 '이원론적 세계관', '왜곡된 구원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및 '은사의 불균형성' 등 신학적 위험성 때문에 선교학적 측면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할 신학적 쟁점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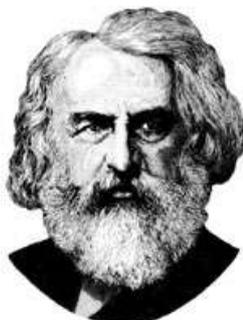
먼저 SLSW의 강점으로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최우선으로 한다는데 있다. 그리고 SLSW는 선교사역을 위해 문화인류학적 선행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계몽주의 이후 인식론과 경험론을 바탕 한 서구의 실증주의와 현대 과학주의 앞에서 영적 존재의 실제성을 부각 시킨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게다가 이런 영적 세계관을 부각시킴으로써 SLSW의 선교방법은 매우 현상학적인 선교자세와 열정적 영성신앙을 추구한다는데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LSW의 약점은 선교학적 측면에서 여러 군데 나타난다. 첫째, 성경해석이 매우 상황적이다. SLSW을 주장하기 위해 제기된 성경본문을 보면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용납하기 힘든 오류가 발견된다. 그것은 텍스트를 통해 도출된 신학적 원리를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데도, SLSW 옹호자들의 성경해석학을 살펴보면 미리 상황적 틀을 전제하고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독자가 원하는 결과를 유추하는 오류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의 능력대결에 치중한 나머지 선포된 복음의 능력을 축소시킨다. SLSW의 본질적인 위험성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의해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개인의 영적 능력을 통한 능력대결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인 복음전파를 통한 복음의 능력보다도 본말전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SLSW의 개념 가운데 비기독교적 세계관의 요소들이 다분하다. 예를 들어, SLSW의 세계관은 고대근동이 신화적 요소가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전통종교의 신앙관과 혼합된 미신적 요소들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상관없는

이원론적 세계관의 요소마저도 가지적으로 나타난다. 마치 선과 악의 싸움처럼 말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SLSW의 주장하는 신학적 쟁점들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평가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단의 정체에 관한 논의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방해하는 인간의 적대세력이지만, 지음 받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다. SLSW가 주장처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나 비슷한 권능이나 힘을 지닌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사단과의 전쟁보다 죄와의 싸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둘째, 귀신들림에 관한 논의이다. SLSW에서는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인들도 귀신들림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심지어 유전, 접촉행위와 저주 등을 통해서도 귀신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정령송배자들의 전통적 신앙관과 아주 흡사하다. 그러나 성경은 능력전달이나 귀신들림을 접촉이나 전이와 같은 주술적 행위에 두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허용케 하시는 주권 아래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귀신들릴 수 있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비기독교적 세계관의 소치일 뿐이다. 셋째, 땅 밟기와 귀신축사에 관한 논의이다. 능력대결을 위한 이런 의식이나 행위들을 무절제하게 활용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전인격적인 신앙성장을 방해한다. 뿐만 아니라 복음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통적인 선교방법론과도 상당한 마찰을 빚게 된다.

그러므로 전정한 선교는 능력대결로서 지역귀신과 싸우거나, 중보자의 위치에서 신비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개인의 전쟁이나 이 땅에서의 전쟁으로 국한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혁주의 선교는 오직 성경의 권위를 기저로 하여 하나님이 선교의 주권자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선교(Mission Dei)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직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이증계명을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정신”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며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개혁주의 선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 인생 찬미가

Psalm of Life

- Henry W. Longfellow -
-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 -

Tell me not, in mournful numbers,
"Life is but an empty dream!"
For the soul is dead that slumbers,
And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Life is real! Life is earnest!
And the grave is not its goal;
"Dust thou art, to dust returnest,"
Was not spoken of the soul.

Not enjoyment, and not sorrow,
Is our destined end or way,
But to act, that each tomorrow
Find us farther than today.

Art is long, and Time is fleeting;
And our hearts, though strong and brave,
Still, like muffled drums, are beating
Funeral marches to the grave.

In the world's broad field of battle,
In the bivouac of life,
Be not like dumb, driven cattle--
Be a hero in the strife!

Trust no future, howe'er pleasant:
Let the dead past bury its dead:
Act,-- act in the living present,
Heart within, and God o'erhead!

Lives of great men all remind us
We can make our lives sublime,
And, departing, leave behind us
Footprints on the sands of time;

Footprints, that perhaps another,
Sailing o'er life's solem main,
A forlorn and shipwrecked brother
Seeing, shall take heart again.

Let us, then, be up and doing,
With a heart for any fate;
Still achieving, still pursuing,
Learn to labour and to wait.

인생 찬미가

슬픈 곡조로 나에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잠자는 영혼은 죽은 것,
사물의 진상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는 아니다.

인생은 참된 것! 인생은 진지한 것!
무덤이 그의 목적지는 아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는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나 끝은
즐거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제각기 모두 내일이 오늘보다도
낫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예술은 길고 세월은 빠른 것.
우리의 심장은 강하고 튼튼하지만,
마치 싸맨 북처럼, 무덤을 향해서
장례식의 행진곡을 치며 나아간다.

이 세상의 넓은 전쟁터에서,
인생의 거치른 야영장에서,
말뚫고 쫓기는 짐승처럼 되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영웅이 되라!

그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것은 죽은 과거로 묻게 하라.
활동하라, -- 살아 있는 현재 속에서 활동하라,
안에는 용기를 갖고, 위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위인들의 생애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우리도 장엄한 삶을 만들 수 있고
떠날 땐 때라는 모래더 위에
발자욱을 남겨놓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 발자욱, 그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이,
엄숙한 생의 바다 위로 배져어가다가
홀로 외롭게 파선당한 사람이 보면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리라.

그러나 우리 일어나 일하자,
어떠한 운명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꿈임없이 완성하고 꿈임없이 추구하면서
우리 일하며 기다리는 것을 배우자.

2016년도 신·편입생 모집(일반전형)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과 “철저한
성경언어교육에 기초한 주석-설교 훈련”을
바탕으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바른
신학교육의 산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특징:
- ① 성경언어 강화를 통한 성경 주석 특성화
 - ② 직장인을 위한 수업 운영
 - ③ 지방학생 기숙사 제공
 - ④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7분 거리
 - ⑤ 다양한 장학 제도(성적, 복지, 단독목회, 원우가족, 근로, 특별 등)
 - ⑥ 타 교단 학생으로 본 교단에서 목회를 원할 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회할 수 있도록 함
3.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sb.ac.kr

1. 모집 내용(신입, 편입) - “사회복지학 신설”

과 정		인원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박사과정 (Ph.D.)	-신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0 명	 <p>1.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 2016년 8월 1일(월)~18일(목) 전형일: 8월 19일</p> <p>2. 전형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Th. M./ M. Div./ M. A. - 서류전형(1차) - 면접(2차) ② Ph. D. - 서류전형(1차) - 영어 및 전공시험(2차) - 면접(3차) <p>※ 성경학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다음 '성경의 문학', '성경의 보건학', '성경의 경영학', '성경의 건축학', '성경의 역사관', '존 밀톤의 실낙원에 나타난 구원관', '토스토예프스키 죄와 벌에 나타난 인간이해' 등을 연구하는 과목임.</p> <p>4. 평생교육원의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상담연구반'은 매 학기마다 1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평신도조직신학교사반'은 구역장 교육에 매우 좋음 - '목회자 주석-설교반'은 설교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됨
신학석사과정 (Th.M.)	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선교학	0 명	
목회학석사과정 (M. Div.) 목회학연구과정 (M. Div. eq.)	목회자 양성 과정임	0 명	
석사과정 (M.A.)	-성경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0 명	
평생교육원	-기독교 상담연구반 -평신도 조직신학 교사반 -목회자 주석-설교반	00 명	